

#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 강진 '육아수당의 힘'

## 민선 8기 역점 지난해부터 시행 출생아 수 증가 유의미한 성과

강진군은 민선 8기 역점 시행 중인 육아수당 정책으로 출생아수가 크게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강진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수당은 2022년 1월부터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 상관없이 자녀 1명당 월 60만원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급해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금액, 최장 기간을 자랑한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부터 5월 현재까지 누적 120명에 7560만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육아수당 시행 9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강진군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육아수당 시행 1년 전인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9명이 태어난 반면, 육아수당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83명이 출생했다.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은 "같은 기간에 전남 출생등록자수 2.7%, 전국 4.49% 감소한 반면, 강진의 경우 40.6%가 증가했다"면서 "육아수당 시행 이후 강진으로

전입 초과 현상에 따른 사회적 이동 역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출산·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시행 중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2주간 154만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의 경우에는 산후 조리비로 1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를 낳는 출산 가정에 국민행복카드도 2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과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경우 만 0세까지 부모 급여 70만원을, 만 1세까지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하고 만 0세는 부모 급여 70만원의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군은 기저귀와 체온계 등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제공하고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 300만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300만원을 각각 해당자에 대해 지원한다.

이밖에 난임부부 시술비 110만원과 한방 난임 치료 시술비 126만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26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강진군은 육아수당 시행 1주년이 되는 올해 10월 부모 간담회와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육아수당 지급 이후의 실질적인 변화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모색할 예정이다.

강진=김윤복 기자

##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독려 무안군, 23일까지 판매

무안군(군수 김산)은 벼 재배 농가가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한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역농협에서 오는 23일까지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무안군이 농가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 포함 보험료 90%를 지원해 농가는 10%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분증, 경영체등록증 등 농지의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한다.

7종은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떡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등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경영의 안전장치인 만큼 재해보험에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형연 기자

## 스마트 관광 안내지도 구축 완도군, 음성안내 등

완도군은 인터넷·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에 맞춰 '스마트 관광 안내 지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관광 안내 지도'는 인터넷 주소창에 'wando.dadoea.kr'를 입력 또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완도군 스마트 관광 전자 지도'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스마트 관광 안내 지도에는 권역별, 해수욕장, 문화재, 공원, 청산도 슬로길 등 주요 관광지 정보는 물론 내비게이션·길찾기 기능 등 교통과 맛집, 숙박업소, 행사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관광지별로 아이콘을 적용하여 관광지의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스탬프 투어 등 관광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음성 안내 기능과 외국어 기능도 추가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 하계 대학생 군정 체험 모집 해남군, 7월3~5일 신청

해남군은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선발된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7월28일부터 8월24일까지 군 실과소와 읍면 등에서 행정사무 및 현장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134명이며 취약계층 등 우선선발 20%, 향우자녀 선발 10%, 일반선발 70%로 선발유형을 구분해 선발한다. 자격은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남군에 있는 2년제 대학 이상 재학생으로 신청기간은 7월 3~5일까지다.

군 실과소(관광지 포함)의 경우 해남군 누리집, 읍면사무소(지역아동센터 포함)의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7월13일 오후 2시 해남군청 대회의실에서 대면추첨을 통해 선발하며 참석자에 한해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발결과는 7월14일 군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를 통해 공개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누리집(www.haenam.go.kr) 배너 및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총무과 행정팀(061-530-5236)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 애플수박 수확 현장

망골 해남 애플수박이 본격 출하되고 있다. 일반 수박 4분의 1 크기인 애플수박은 소형과일을 선호하는 1~2인 가구 소비 트렌드와 맞아 떨어지면서 수박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해남군 제공

## 신안 흑산도 통일신라시대 사찰 건물지 확인

### 학계 관심 속 현장자문위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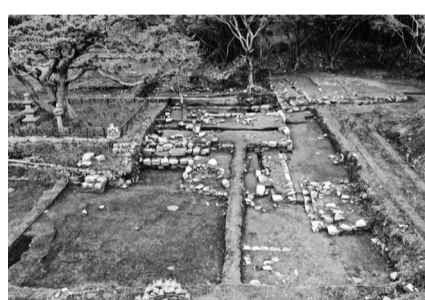
신안군 흑산도에서 통일신라시대 사찰 건물지가 확인돼 학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안군은 흑산도 무심사지 발굴조사에 대한 현장자문위원회를 최근 발굴현장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흑산도 무심사지는 상라산 동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나 창건연대와 폐사 시기 등은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무심사지에는 삼층석탑과 석등이 남아있으며, 지표조사와 기존 발굴조사를 통해 '무심사선원(无心寺禪院)' 명기 외편이 확인됐다.

지난 2009년부터 시굴·발굴조사가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사역 확인과 사찰 성격 규명 등에 대해 명확한 결과들이 확보



되지 않았다.

군은 지난 2021년부터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 슌)를 통해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2동, 축대, 석렬 4기 등의 유구가 확인됐다. 중심사역의 통일신라시대 금당지는 고려시대 중기 건물지 아래에서 중복된 상태로 확인됐다.

출토 유물은 인화문 토기편을 비롯해 금동불상 발편, 중국제 도자기편, 연화문

막새편 및 '중원갑진년육월조(中元甲辰年六月造)' 명(1244년 추정) 막새편 등이 출토됐다. 흑산도는 연仁(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와 서긍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흑산도 관사와 봉수대가 기록돼 있다.

무심사지 주변 상라산성, 제사터, 관사터 발굴조사에서는 중국제 동전과 도자기가 확인돼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동아시아 남북항로의 해상무역 거점항으로 이용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통일신라시대 금당지에 대한 확장 발굴조사와 주변 유적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흑산도의 고대 동아시아 국제무역항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 진도군, 공약사업 30건 완료 '순항중'

진도군의 100개 공약사업 가운데 농수산 예산 편성 등 30건이 완료되면서 공약 이행이 순항 중이다.

19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민들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공약 사항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를 통해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핵심 기조로 △다함께 잘사는 산

업 혁신 △모두가 행복한 복지 혁신 △인재를 키우는 교육 혁신 △찾아서 머무는 관광 혁신 △군민을 섬기는 행정 혁신 등 5대 목표 아래 100개 공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농수산분야 예산 30% 편성 △전지역 학생 100원 버스 신회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 운영 등 총 30건의 사업

을 완료했으며, 완료 후에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아리랑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등 총 70건의 사업이 정상 추진 중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공약 이행률이 30%로 나타나 민선 8기 김희수 진도군수 공약사항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김희수 군수는 "행정 절차 이행, 시기 미도래 등으로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 정부와 전남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무안군, 11월까지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11월까지 의료취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한방공중보건교사가 11개 보건진료소에 월 1회 방문해 1:1 건강상담과 침 시술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증상 완화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 및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의약 의료 서비스로 호응이 기대된다.

무안군보건소 관계자는 "의료취약지 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자가 관리능력을 키워 건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형연 기자

## 72곳 안전대전환 합동 점검 진도군, 고위험 밀집시설

진도군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기간을 맞아 민간 전문가와 합동 현장점검에 나섰다.

19일 진도군에 따르면 안전대전환 집중점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추진해오던 국가안전대진단의 새로운 명칭이다.

이번 점검은 민·관이 합동으로 사전에 위험요인을 없애고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예방활동이다.

군은 교량 및 산사태취약지역 등 시설 72개소를 민·관 합동 점검해 위험요인을 없애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는 진도군 홈페이지에 공개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실시해 살기 좋은 진도 만들기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